

(주)하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지난 9월 9일~ 12일(4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린 2015 한국국제 축산박람회에서 (주)하농(대표이사 최주철)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하농은 2010년 9월 설립한 기업으로 사료첨가제를 제조 공급하는 회사이다.

제품이 영업사원이다

(주)하농은 방문 영업을 하지 않고, 특화된 택배 시스템을 운용한다. 물류비를 줄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런지 (주)하농 제품은 소비자들의 입소문에 의해 구입하는 농장들이 많다고 한다. 더불어 지난해 포도당 품귀현상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으나, 2개월 후 공급이 안정되면서 그동안 인상된 차액을 자발적으로 구매자 모두에게 환불해 주었다. 굳이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가격인상 부분까지 회사가 되돌려주니 소비자들로부터 평판이 좋을 수 밖에 없다.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장관상 수상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기간 동안 (주)하농의 부스에는 거래고객들에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성황을 이루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외국(중국 심천, 대만 등)에서 '라파부러



▲ 지난 12일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주)하농 최주철 대표이사(좌)

운'과 '사포니아' 구매상담을 위해 일부러 내방한 바이어가 8명이나 있었으며, 11월경 그 성과가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하농이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물류의 단순화에 의한 원가절감 차액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등 착한가격 및 가격 공개정책 지향, 과대선전을 하지 않는 정직한 효과 표방, 소비자의 신뢰 구축 등의 (주)하농의 소비자 우선주의 경영방침, 축산관련 단체 및 일반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심사 평가하여 수상하게 된 것이다. 지속된 AI로 관련 업계의 매출이 급격히 내려 갈 때 오히려 매출이 꾸준히 상승, 성장하고 있는 (주)하농의 최주철 대표는 "앞으로도 좋은 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농가에게 공급해 축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양계**